

#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특성 및 변화 분석에 관한 연구

##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n Elderly's Living Arrangement in Rural Area

정재훈\*

Jeong, Jae-Hoon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and changes of elderly households in rural area. The elderly were classified as elderly living alone, elderly couple living together, and elderly living with their children. Data from the survey of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conducted in 1998, 2008, 2017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e subjects of the study included a sample of 9,401 respondents who represent aged 65 or more in Korea. The result of analysis was as follows; First, over the past 20 years, there has been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omposition of the sexes of elderly in rural area, and aging is becoming more serious. Second, elderly living with children continue to decrease, and elderly couple are in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living alone is on the increase, but it tends to decrease in 2017. Third, the proportion of houses in elderly households is still very high, but it is gradually decreasing and the proportion of apartments is increasing. Fourth, the frequency of communication with children tended to increase slightly in all household types, while the frequency of encounter decreased slightly in 2008 and then increased in 2017. Fifth, the health status and economic status of the elderly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over the past 20 years. Finally, the emotional support in all elderly households is maintained constantly, but the instrumental support is gradually weakened.

주요어 : 노인가구, 변화, 가구형태, 주거환경, 농촌지역

Keywords : Elderly Household, Changes, Living Arrangement, Residential Environment, Rural Area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농촌지역은 자녀들이 성장하여 도시로 떠남에 따라 노인들만 사는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농촌노인은 자녀와 함께 도시로 이사하는 것보다는 도시보다 열악한 생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살아온 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한다. 이는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생활터전이나 사회관계망을 버리고 도시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노인에게는 적응능력이 떨어져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일 것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도시지역의 인구가 81.3%인 데 반해 농촌지역은 18.7%에 불과하다. 그리고 농촌지역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농촌인구의 22%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농촌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농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정책과 주거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활동반경이 좁아 주거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노년기의 주거환경이란 인간에게 가장 필수적 생활 환경이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노인이 겪는 일상생활상의 제한을 보완할 수 있으며, 생활영역의 축소 및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의 약화 등으로 사회적 관계망이 위축되고 심리·사회적 고독과 소외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되고 질 높은 주거환경의 구축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sup>1)</sup>

노인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인학이나 노인복지학 분야에서는 자아존중감<sup>2)</sup>, 우울<sup>3)</sup>, 심리적 안녕감<sup>4)</sup>, 가족·사회적 관계망<sup>5)</sup>, 삶의 만족도<sup>6)</sup> 등 사회·심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해 건축학분야에서는 주거환경 등 물리적 요소에 치중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노인

- 1) 김도연·김현철·진정, 농촌지역 노인가구 구성원의 주거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3), 2012, p.83
- 2) 김영희·김기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7, 2002
- 3) 박영례 외 4인,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 2005
- 4) 손용진,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2(3), 2010
- 5) 정규형, 노인의 비동거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도시·농촌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55, 2017
- 6) 윤정에 외 5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비교, 한국고령친화건축정책학회, 8(2), 2016
- 7) 이진희·김옥,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28(4), 2008
- 8) 박영란·박경숙,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노인복지연구, 60, 2013
- 9) 장수지,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2010
- 10) 권중돈·주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2000.
- 11)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 12) 임정기,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변화궤적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013

\* 한남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Hannan University, jaehoon@hnu.kr)

의 주거생활에는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이나 정서적인 요소 등 내·외부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을 하게 되므로, 이런 주변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가구는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등 가구형태에 따라 주거환경이 다르고, 또 노인의 주거욕구도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노인들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가구형태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주거유형이나 자녀와의 왕래 및 자녀로부터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등 가구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요소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년기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주거환경적 요소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여 변화추이를 탐색하고, 이러한 영향이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등 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주거와 관련된 요소의 특성과 이것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농촌지역<sup>8)</sup>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가구에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주기적으로<sup>9)</sup> 시행하고 있는 전국 노인실태조사 중 최근 20여년 동안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1998년, 2008년, 그리고 2017년 실시한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확률표집방법으로 선정된 조사표본에서 대리 응답이나 무응답 등 결측 항목이 있는 것은 제외하여 1998년 1,397명, 2008년 4,855명, 그리고 2017년 3,14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표집된 자료 중에서 조사대상자를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등 가구유형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조사 항목 중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소와 주거환경과 관련된 요소만을 선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촌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을 분석하고 노인가구유형에 따른 주택종류, 소유형태, 연락빈도, 왕래빈도 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통해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노인의 건강상태, 경제상태, 정서적 지원, 도구적 지원 등에 대한 가구유형별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 2.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

본 조사대상 노인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

7)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가구를 뜻한다.  
8) 본 연구에서 농촌노인이라는 용어는 어촌을 포함한 행정구역상 모든 읍면부에 거주하는 노인을 의미한다.  
9) 보건복지부에서는 1994년을 시작으로 1998년, 2004년, 2008년, 2011년, 2014년, 그리고 최근 2017년까지 노인실태조사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력, 생존하는 자녀수, 거주하고 있는 주택종류, 소유형태, 주관적인 건강상태, 주관적인 경제상태, 그리고 정서적 지원 및 도구적 지원 등을 1998년, 2008년, 2017년 등 10여 년 단위로 그 흐름을 분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Table 1과 같다.

먼저 노인의 성별을 살펴보면 여성노인이 약 60%로 남성노인보다 많으며<sup>10)</sup> 최근에 다소 줄어드는 경향(56.9%)을 보이고 있다. 연령은 20여 년 동안 고령화가 더 심화되고 있으며 평균연령도 1998년 72.4세에서 2008년 73.6세, 2017년 74.3세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학력수준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무학인 노인이 1998년 65.1%에서 2008년 45.6%, 2017년 30.9%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중학교 이상의 학력인 노인은 1998년 8.2%에서 2008년 14.2%, 2017년 29.7%로 크게 증가하였다. 자녀수는 점차 줄어들어 1998년 평균 5.1명에서 2008년 4.5명, 2017년 평균 3.6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종류를 살펴보면, 단독주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점차 아파트 거주가 늘어나 1998년 5.7%에서 2017년 22.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소유형태는 자가 거주노인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1998년 87.8%, 2017년 78.0%), 월세와 무상이나 노인시설 등에 거주하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998년 8.8%, 2017년 22.5%). 건강상태는 1998년 평균 2.41에서 2017년 평균 2.92로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인 스스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과 함께 국가의 노인의료복지지원 등이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아직 보통 수준(평균 3.00)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경제상태도 1998년 평균 2.47에서 2017년 평균 2.92로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녀에게 받는 정서적 지원은 보통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도구적 지원은 보통 이하이며 1998년 평균 2.98에서 2017년 평균 2.60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 3. 농촌지역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농촌지역은 점차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나면서 고령화가 심화되고 노인가구의 가족구성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Fig 1에서 보듯이 1998년 자녀와 함께 살던 노인가구가 40.3%였으나 2008년 18.8%, 2017년 16.5%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반면 노인부부만 사는 가구는 1998년 35.9%에서 2008년 45.3%, 2017년 54.8%로 크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독거가구는 1998년 20.1%에서 2008년 32.0%로 증가하다가 2017년 24.8%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지게 되면 부부노인은 배우자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면 독거노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부터 시행되면서 노인요양시설 등으로 주거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0)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도 전체 인구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는 99.6으로 여성이 조금 더 많은데, 이처럼 차이가 있는 것은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in Rural Area(%)

구분		1998년	2008년	2017년
성별	남	39.3	39.0	43.1
	여	60.7	61.0	56.9
연령	65-69세 이하	37.7	28.8	31.2
	70-74세 이하	29.8	32.4	22.8
	75-79세 이하	19.0	22.0	23.5
	80-84세 이하	9.6	10.8	14.2
	85세 이상	3.9	6.0	8.3
	평균	72.4세	73.6세	74.3세
학력	무학(글자모름)	35.4	24.2	9.7
	무학(글자해독)	29.7	21.4	21.2
	초등학교	26.7	40.2	39.3
	중·고등학교	6.7	12.8	25.9
	전문대학 이상	1.5	1.4	3.8
	평균	5.1명	4.5명	3.6명
주거 종류	단독주택	89.7	89.0	69.7
	아파트	5.7	5.2	22.2
	다세대·연립주택	1.0	3.0	6.6
	기타	3.7	2.8	1.5
	평균	5.1명	4.5명	3.6명
	소유 형태	자가	87.8	83.3
전세		3.5	2.0	2.5
월세		4.6	2.6	10.2
기타(무상 등)		4.2	12.1	12.3
평균		2.41	2.45	2.92
건강 상태		1=매우 나쁨	24.9	14.6
	2=약간 나쁨	35.4	45.4	32.7
	3=보통	16.4	21.2	23.7
	4=약간 좋음	20.6	17.9	34.1
	5=매우 좋음	2.7	0.9	2.4
	평균	2.41	2.45	2.92
경제 상태	1=매우 나쁨	18.4	11.0	5.1
	2=약간 나쁨	29.6	30.5	28.1
	3=보통	40.0	36.1	36.8
	4=약간 좋음	11.0	21.1	29.1
	5=매우 좋음	1.0	1.3	0.8
	평균	2.47	2.74	2.92
정서적지원	1=매우 부족	0.6	6.8	7.8
	2=약간 부족	9.1	18.4	22.2
	3=보통	42.2	-	-
	4=약간 충분	44.2	64.7	59.9
	5=매우 충분	3.9	10.1	10.1
	평균	3.42	3.54	3.42
도구적지원	1=매우 부족	4.2	23.0	24.2
	2=약간 부족	28.9	31.4	35.9
	3=보통	34.4	-	-
	4=약간 충분	30.2	38.9	35.6
	5=매우 충분	2.4	6.7	4.3
	평균	2.98	2.76	2.60
표본수		1397	4855	3149

\* 각년도 표본추출조사, 65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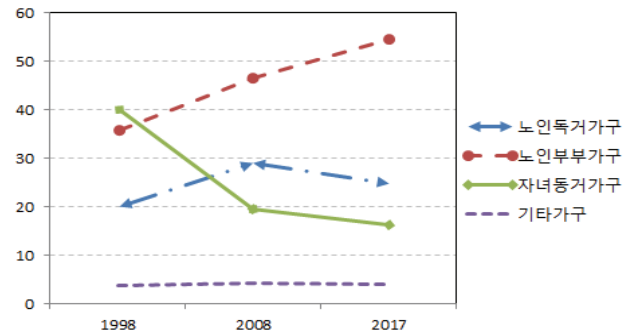


Fig.1. Changes of the elderly's living arrangement

노인들이 자녀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Table 2에서와 같이, 2008년에 54.2%가 긍정적이었으나 2017년에는 15.3%만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이는 점차 노년기에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노인 스스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싶은 자녀는 장남이 가장 많았으나 점차 장남 선호는 줄어들고 딸 또는 자녀 중 누구든지 상관없다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 (Table 3 참조).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는 Table 4에서 보듯이, 2008년에는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해서’가 44.5%로 가장 높았으나 2017년에는 18.4%로 낮아지고 오히려 ‘자녀의 가사,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2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외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15.6%),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해서’(15.4%),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15.1%) 순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Intention to live with children after becoming senior(%)

구분	2008년(n=759)	2017년(n=3149)
있다	54.2	15.3
없다	45.8	84.7

Table 3. Children who want to live together after becoming senior (%)

구분	2008년(n=1645)	2017년(n=482)
장남	57.3	46.3
아들 중	15.4	18.0
딸 중	1.2	5.4
누구나	23.5	30.1
기타	2.6	0.3

Table 4. Reasons to live with his(her) child (%)

구분	2008년 (n=715)	2017년 (n=281)
자녀와 사는 것이 당연해서	44.5	18.4
외로워서	6.7	9.2
가사노동을 하기 힘들어서	5.7	-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해서	6.7	15.4
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3.4	-
자신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10.3	15.1
자녀의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10.3	15.6
자녀의 가사, 양육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10.5	24.4
기타	1.9	1.9

#### 4.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주거환경 변화

##### 4.1 가구유형별 주택종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 등 가구유형에 따라 10여 년 단위의 간격을 두고 거주하는 주택의 종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체적으로 노인들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그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다음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다세대나 연립에 거주하는 비율은 매우 낮지만 비율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단독주택의 거주비율을 자세히 살펴보면 1998년 89.5%에서 2008년 89.1%, 2017년 70.1%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아파트의 거주비율은 1998년 5.7%에서 2008년 5.2%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 22.3%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다른 가구보다 낮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함께 사는 자녀들이 아파트를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자세히 보면 1998년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노인독거가구 95.0%와 노인부부가구 94.8%보다 자녀동거가구가 82.1%로 낮은 반면, 아파트의 거주비율은 노인독거가구 2.5%와 노인부부가구 2.0%보다 자녀동거가구가 10.5%로 훨씬 높게 나타났다. 2017년에도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노인독거가구 71.4%와 노인부부가구 73.1%보다 자녀동거가구가 57.5%로 낮은 반면, 아파트의 거주비율은 노인독거가구 21.8%와 노인부부가구 19.6%보다 자녀동거가구가 32.3%로 높게 나타났다.

##### 4.2 가구유형별 소유형태

시대의 흐름에 따른 노인가구의 소유형태 변화는 자가소유

는 조금씩 감소하고 전세는 변화가 없으며 월세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Table 6 참조). 가구형태별 특성은 노인독거가구가 노인부부가구와 자녀동거가구보다 자가소유비율이 더 낮고 월세비율은 더 높게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자가소유는 1998년 81.1%에서 2008년 67.9%, 2017년 57.3%로 크게 감소한 반면, 월세는 1998년 8.5%에서 2008년 4.6%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14.2%로 다시 증가하였다. 특히 2008년부터 독거노인이 기타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가 25%를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독거노인의 경우 몸이 불편해지면 스스로 생활이 어려워지게 되므로 노인전용주거시설 등으로 거처를 옮기는 것으로 해석된다.

##### 4.3 가구유형별 연락빈도와 왕래빈도

사회생활에서 은퇴를 한 후 활동반경이 좁아지는 노인들은 상실감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쉽다. 이때 가족 간의 소통은 심리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노인들만 사는 경우 노인들은 떨어져서 사는 자녀들과의 연락이나 왕래만으로도 많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연락빈도는 지난 1년간 따로 사는 자녀들과 전화, 문자, 이메일, 편지 등으로 연락을 주거나 받는 빈도로 측정되었으며 왕래빈도는 1년간 따로 사는 자녀들과 만난 빈도를 의미한다.

먼저 연락빈도를 살펴보면 Fig. 2에서 보듯이, '주 1회 이상'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으며(1998년 50.8%, 2008년 53.8%, 2017년 54.3%), 다음으로 '거의 매일', '월 1회 이상', 그리고 '월 1회 미만' 순이었다. 자칫 연락이 끊기기 쉬운 '월 1회 미만'의 빈도는 1998년 4.8%에서 2017년 2.4%로 감소하였다. 전체적으로 모든 가구유형에서 연락빈도는 20여 년 동안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가구유형별 연락빈도를 비교해보면 노인부부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노인독거가구, 자녀동거가구 순이

Table 5. Changes of Housing Types (%)

구분	1998				2008				2017			
	노인독거 (n=281)	노인부부 (n=501)	자녀동거 (n=563)	전체	노인독거 (n=1556)	노인부부 (n=2201)	자녀동거 (n=911)	전체	노인독거 (n=781)	노인부부 (n=1724)	자녀동거 (n=358)	전체
단독주택	95.0	94.8	82.1	89.5	89.8	91.0	83.6	89.1	71.4	73.1	57.5	70.1
아파트	2.5	2.0	10.5	5.7	3.5	4.2	10.3	5.2	21.8	19.6	32.3	22.3
다세대·연립	0.7	1.6	0.7	1.0	3.2	2.7	3.4	3.0	5.7	5.6	8.7	6.2
기타	1.8	1.6	6.7	3.8	3.5	2.2	2.7	2.7	1.2	1.4	1.5	1.4

Table 6. Changes of Home Ownership (%)

구분	1998				2008				2017			
	노인독거 (n=281)	노인부부 (n=501)	자녀동거 (n=563)	전체	노인독거 (n=1556)	노인부부 (n=2201)	자녀동거 (n=911)	전체	노인독거 (n=781)	노인부부 (n=1724)	자녀동거 (n=358)	전체
자가	81.1	91.2	88.5	88.0	67.9	91.1	89.9	83.1	57.3	82.1	77.2	74.9
전세	2.5	1.8	5.5	3.5	2.4	1.1	3.5	2.0	2.6	1.8	4.6	2.5
월세	8.5	3.6	2.8	4.3	4.6	1.5	1.4	2.5	14.2	7.9	12.2	10.3
기타	7.8	3.4	3.2	4.2	25.1	6.3	5.2	12.4	25.8	8.2	6.0	12.4

었다. 자녀동거가구의 경우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 떨어져 사는 자녀들이 안심하기 때문에 연락빈도가 다른 가구유형보다 오히려 적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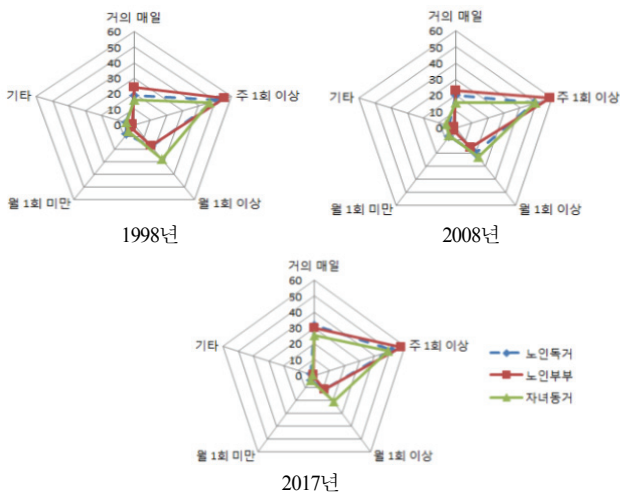


Fig. 2. Changes of Frequency of Communication (%)

왕래빈도에서는 Fig. 3에서와 같이, ‘주 1회 이상’ 또는 ‘월 1회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비교적 자주만나는 ‘주 1회 이상’을 포함한 ‘월 1회 이상’의 빈도를 살펴보면 1998년에는 70.5%에서 2008년 64.4%로 다소 감소하다가 2017년에는 73.6%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가족 간의 소원해지기 쉬운 ‘3개월 1회 미만’의 왕래빈도는 1998년에는 5.3%에서 2008년 10.2%로 다소 높아졌다가 2017년에는 4.5%로 다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유형별 왕래빈도를 비교해보면 계속해서 노인부부가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1998년에는 노인독거가구에서 왕래빈도가 가장 낮았으나 2008년, 2017년에는 자녀동거가구에서 왕래빈도가 가장 낮게 분포하였다. 이와 같이 왕래빈도가 다소 줄어드는 경향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카톡이나 화상통화 등으로 쉽게 연락이 가능해진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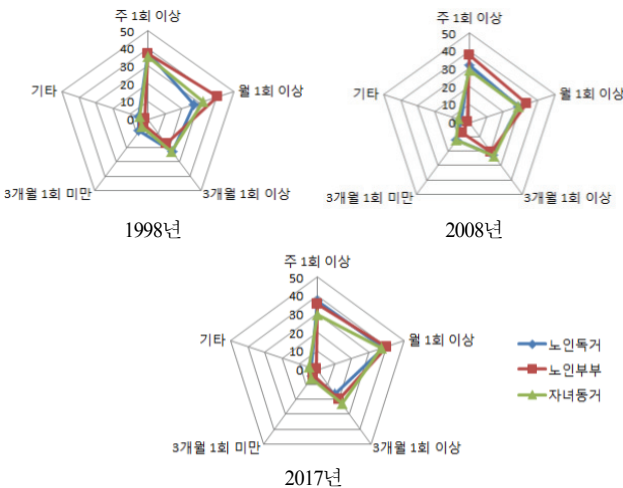


Fig. 3. Changes of Frequency of Intercourse (%)

#### 4.4 가구유형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

노인들에게는 무엇보다 건강이나 경제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제기된다. 그 두 가지 문제는 모두 노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주요한 요소이지만, 특히 농촌노인에게는 이로 인한 문제가 더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왜냐하면 농촌노인들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도시노인보다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규모가 영세한 농림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느라고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등 연금소득이 있는 도시의 일반퇴직 노인들의 상황과는 매우 차이가 난다.11) 그리고 농촌노인은 힘든 농사일 이외에도 자녀와 멀리 떨어져 노인단독으로 살아가다보니 신체 및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노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는 본인의 주관적인 평가로 “1=매우 나쁨”, “2=약간 나쁨”, “3=보통”, “4=약간 좋음”, “5=매우 좋음” 등 5점 척도로 표기되었으며 숫자가 클수록 좋은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1998년의 경우 Table 7에서와 같이, 건강상태는 자녀동거가구(2.45), 노인부부가구(2.43), 노인독거가구(2.31) 순이었으나, 그 차이가 작아 세 그룹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고 경제상태에서는 자녀동거가구가 2.62로 노인부부가구(2.45)와 노인독거가구(2.25)보다 높았으며 세 그룹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이는 건강상태에서는 세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경제사정은 자녀동거노인, 부부노인, 독거노인 순으로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의 경우 건강상태는 Table 8에서 보듯이, 노인부부가구가 2.57로 가장 높았으며 세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p < .001$ ) 경제상태에서도 노인부부가구가 2.88로 자녀동거가구(2.83)와 노인독거가구(2.50)보다 높았다( $p < .001$ ). 그리고 2017년에 와서 노인의 건강상태는 Table 9에서와 같이, 노인독거가구가 3.22로 자녀동거가구(3.10)와 노인부부가구(3.02)보다 높았으며( $p < .001$ ) 경제상태에서도 노인독거가구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자녀동거가구(3.12), 자녀부부가구(2.98)순이었으며 세 그룹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p < .001$ ).

Table 7. Health Status and Economic Status (199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 확률
건강 상태	노인독거	281	2.31	1.14	1.48	.228
	노인부부	501	2.43	1.18		
	자녀동거	561	2.45	1.12		
	전체	1343	2.41	1.15		
경제 상태	노인독거	281	2.25	0.96	15.54	.000***
	노인부부	501	2.45	0.91		
	자녀동거	561	2.62	0.94		
	전체	1343	2.48	0.94		

\* $p < .05$ , \*\* $p < .01$ , \*\*\* $p < .001$

11) 윤순덕, 박은식, 김은자, 조영숙,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vol. 13, 2004, p.84

Table 8. Health Status and Economic Status (200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 확률
건강 상태	노인독거	1556	2.28	0.91	41.39	.000***
	노인부부	2201	2.57	1.01		
	자녀동거	911	2.46	0.95		
	전체	4668	2.45	0.97		
경제 상태	노인독거	1556	2.50	0.99	67.45	.000***
	노인부부	2201	2.88	1.00		
	자녀동거	911	2.83	1.17		
	전체	4668	2.74	1.05		

\*p<.05, \*\*p<.01, \*\*\*p<.001

Table 9. Health Status and Economic Status (2017)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 확률
건강 상태	노인독거	781	3.22	1.01	10.19	.000***
	노인부부	1724	3.02	1.02		
	자녀동거	519	3.10	1.02		
	전체	3024	3.09	1.02		
경제 상태	노인독거	781	3.24	0.87	23.67	.000***
	노인부부	1724	2.98	0.89		
	자녀동거	519	3.12	0.88		
	전체	3024	3.07	0.88		

\*p<.05, \*\*p<.01, \*\*\*p<.001

시대가 흐르면서 노인의 건강상태는 1998년 평균 2.41에서 2008년 평균 2.45, 2017년 평균 3.09로 좋아지고 있으며 노인의 2017년 경제상태(평균 3.07)가 1998년(평균 2.48)이나 2008년(평균 2.74)보다 더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구유형별로는 시대적으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8년에는 자녀동거 노인이 건강상태나 경제상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08년도에는 부부노인이 건강상태나 경제상태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그동안 가장 낮았던 독거노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태가 2017년도에는 오히려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자녀와의 동거에 대한 선호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약화되고 있고 또한 점차 독거노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5 가구유형별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신체적 능력이 저하되고 배우자나 친구 등 자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주변사람들과 사별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에 위협을 받게 된다. 이때 자녀의 노인에 대한 지지체계는 매우 중요하며, 이들의 지지체계로는 정서적 지원(emotional support)과 도구적 지원(instrumental support)을 고려할 수 있다. 정서적 지원은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받거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감정적 측면이며, 도구적 지원은 신체활동의 제한 등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직접

도와주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의미한다.<sup>12)</sup> 본 연구에서 정서적 지원은 일상의 걱정상대에 자녀의 도움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에 대해 “1=매우 부족”, “2=약간 부족”, “3=보통”, “4=약간 충분”, “5=매우 충분” 등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도구적 지원은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에서 자녀로부터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가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농촌노인의 정서적 지원을 살펴보면, 먼저 1998년도에는 Table 10에서 보듯이 정서적 지원이 평균 3.42로 도구적 지원(평균 2.98)보다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민상담 등 정서적 지원은 떨어져 사는 자녀들과도 전화통화 등을 통해 소통이 가능하지만 청소, 식사준비, 세탁 등 도구적 지원은 떨어져 사는 자녀들에게 직접적인 물리적 도움을 받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서적 지원에는 가구유형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도구적 지원에서는 자녀동거가구가 3.04로 가장 높고 노인부부가구가 2.91, 그리고 노인독거가구가 2.88로 세 집단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Table 11에서와 같이 2008년도에는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모두에서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동거가구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p<.001). 여기서 노인독거가구에서 정서적 지원(3.57)과 도구적 지원(2.88)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1998년도와는 다른 현상이다. 그런데 안경숙(2005)은 여전히 노인부부가구가 노인독거가구보다 더 다양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더 많은 연구의 축적이 필요하다. 2017년도에는 Table 12에서 보듯이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 모두에서 세 집단간 차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p<.001, p<.001). 정서적 지원은 노인부부가구에서 평균 3.49로 가장 높았으며 도구적 지원에서는 노인독거가구에서 평균 2.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0.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199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 확률
정서적 지원	노인독거	193	3.35	0.76	1.24	.290
	노인부부	424	3.43	0.79		
	자녀동거	417	3.45	0.67		
	전체	1034	3.42	0.74		
도구적 지원	노인독거	161	2.88	0.96	3.08	.046*
	노인부부	265	2.91	0.99		
	자녀동거	516	3.04	0.86		
	전체	942	2.98	0.92		

\*p<.05, \*\*p<.01, \*\*\*p<.001

12) 안경숙, 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2005, p.4

Table 11.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2008)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 확률
정서적 지원	노인독거	1503	3.57	1.13	4.48	.011*
	노인부부	2191	3.56	1.10		
	자녀동거	875	3.44	1.12		
	전체	4569	3.54	1.12		
도구적 지원	노인독거	1503	2.88	1.38	31.57	.000***
	노인부부	2191	2.82	1.35		
	자녀동거	875	2.45	1.31		
	전체	4569	2.77	1.36		

\* $p<.05$ , \*\* $p<.01$ , \*\*\* $p<.001$ 

Table 12. Emotional Support and Instrumental Support (2017)

구분		N	평균	표준 편차	F 값	유의 확률
정서적 지원	노인독거	754	3.41	1.22	8.41	.000***
	노인부부	1713	3.49	1.12		
	자녀동거	494	3.25	1.19		
	전체	2961	3.43	1.16		
도구적 지원	노인독거	754	2.81	1.36	16.57	.000***
	노인부부	1713	2.57	1.28		
	자녀동거	494	2.39	1.26		
	전체	2961	2.60	1.30		

\* $p<.05$ , \*\* $p<.01$ , \*\*\* $p<.001$ 

## 5. 결론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노인가구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사는 노인들을 노인독거가구, 노인부부가구,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가구 등으로 분류하여 가구유형별 특성과 주거환경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시대적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1998년, 2008년, 2017년 등 10여 년 간격으로 변화추이를 파악하였으며, 또한 각 시대의 가구유형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난 20여 년 동안 농촌지역에서 노인가구의 성별 구성비는 큰 차이가 없고 연령은 고령화가 더 심해지고 있으며 학력수준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둘째, 노인가구형태는 자녀동거가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2017년 16.5%) 노인부부가구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2017년 54.8%) 노인독거가구는 증가하다가 2017년에 감소하는 경향(2017년 24.8%)을 보이고 있다. 노인이 자녀와 동거하려는 의지도 계속 낮아져 2017년에는 80% 정도가 자녀와 떨어져 살기를 원했다.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도 자녀로부터 도움을 받기보다 후손의 양육 등 자녀를 도와주려는 이유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농촌지역에 독거노인, 부부노인 등 노인만 사는 단독

가구가 80%에 이르고 노인들도 자녀와 떨어져 독립적인 생활을 원하는 만큼, 이제는 노인주택을 하나의 주거양식으로 무장에 설계 등 노인친화형 주택으로 활성화하여 농촌지역에 지원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지역 노인가구의 단독주택비율은 여전히 매우 높으나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아파트 비율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2017년 22.3%). 가구유형별로는 자녀동거가구에서 아파트비율이 가장 높아 자녀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인독거가구나 노인부부가구에서도 아파트 거주비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의 생활편의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파트의 편의성을 단독주택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소유형태는 대부분이 자가소유라 농촌에서 주택문제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월세가 점차 늘어나는 것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에 사는 노인과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연락빈도는 전체적으로 모든 가구유형에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왕래빈도는 2008년에 다소 감소했다가 2017년에는 늘어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특이한 점은 자녀동거가구에서 연락빈도와 왕래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동거자녀를 제외하고 떨어져 사는 자녀와의 빈도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독거노인은 부부노인보다 상실감과 고독감을 느끼기 쉬운 환경임을 고려하면 자녀와의 소통이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연락빈도와 왕래빈도가 부부노인보다 계속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손용진, 2010; 정규형, 2017)에서 농촌노인은 자녀와의 관계망이 약할수록 우울감이 높아진다고 밝히고 있다.

다섯째, 농촌노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는 지난 20여 년간 전반적으로 서서히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건강상태와 경제상태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권중돈·조주연, 2000; 박순미, 2010; 이진희·김옥, 2008) 시간이 지남 따라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임정기, 1013)도 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가구유형별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의 비교에서 노인독거가구가 1998년과 2008년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상태였으나 2017년 조사 결과 가장 높은 상태로 올라선 점이다. 이에 대한 원인은 좀 더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한 사항이나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저소득층 노인의 소득 증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일자리 공익사업 등 정부의 노인지원정책이 독거노인에 맞춰진 것도 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모든 노인가구에서 자녀의 정서적 지원은 그동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도구적 지원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임정기(2013)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가구유형별 정서적 지원과 도구적 지원은 노인독거가구가 1998년 조사에서 가장 낮았으나 2008년 이후로는 오히려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노인독거가구에 중점을 두었던 사회적 지원체계를 노인부부가구에게로 확대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지역에서 노인가구형태는 이미 노인만 사는 가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주택은 오랫동안 가족들과 생활해오던 주택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점차 관절이 약해지는<sup>13)</sup> 노인들이 생활하기 위해서는 노년기 생활패턴에 맞는 구조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부의 노인주거 지원정책을 보면 청약우선순위나 금융지원 등 노부모와 함께 사는 가구를 지원하는 정책에서 열악한 독거노인가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자녀동거가구가 20%미만으로 감소하고 노인들도 자녀와의 동거를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어 주택공급정책에서도 노인 스스로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노인친화형 주택으로 개조하고 건설하여 장기적인 저금리로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녀의 도움 없이 생활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의료서비스의 개선으로 건강상태도 점차 나아지고 있다. 주거환경이 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게 되면 몸이 다소 불편해지더라도 노인요양시설로 주거이동을 하지 않고 살던 주거지에서 좀 더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노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발달로 자녀와 정서적 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가 도구적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읍·면단위의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식사서비스와 사회관계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1. 권중돈·조주연,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2000
2. 김도연·김현철·진정, 농촌지역 노인가구 구성원의 주거이동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3), 2012
3. 김영희·김기순, 노인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질과의 관계 연구, 노인복지연구, 17(1), 2002
4. 박순미, 노인의 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도시노인과 농촌노인의 특성비교-, 노인복지연구, 47, 2010
5. 박영란·박경숙, 한국노인의 사회적 관계망과 복지, 노인복지연구, 60, 2013
6. 박영례 외 4인, 노인의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과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9(1), 2005
7. 손용진, 사회자본이 도시와 농어촌 노인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인자녀 관계망 및 사회적 관계망을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2(3), 2010
8. 안경숙, 노인부부가구, 노인독신가구의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1), 2005
9. 윤순덕·박은식·김은자·조영숙, 농촌노인의 특성별 생활실태

비교 연구, 한국노년학연구, 13(1), 2004

10. 윤정애 외 5인, 독거노인과 비독거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의 비교,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 8(2), 2016
11. 이진희·김옥,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4), 2008
12. 임정기, 농촌노인과 도시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변화패턴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8, 2013
13. 장수지, 노년기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기능적 측면과 주관적 삶의 질의 관계: 전후기노인 및 성별에 따른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6(1), 2010
14. 정규형, 노인의 비동거자녀 관계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중단 연구: 도시·농촌 비교, 한국가족복지학, 55, 2017
15. 최경희·조덕호, 도·농노인의 삶의 만족도 분석을 통한 지역별 노인복지정책 우선순위 결정, 도시행정학보, 26(3), 2013
16. 통계청,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 <http://kostat.go.kr>

접 수 일 자 : 2018. 10. 10

수정일자 1차 : 2018. 11. 13

계재확정일자 : 2018. 11. 19

13)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공간은 화장실, 계단, 문지방 등 주로 관절을 사용하는 곳이었다.